

한국 명상음반 설자리 잃어

수입 명상음반이 붐을 터지듯 국내에 상륙하고 있다.

최근 미국 작곡가 크레이그 푸르 어스가 진언을 수록한 이색 명상음반 'Sacred Chants of Buddha'를 내놓는가 하면 선(zen), 평화, 명상을 주제로 한 외국음반들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음반 매장에 선보이고 있다. 현재 전문 음반 매장의 명상음반 코너와 인터넷 사이트에는 완전히 수입음반 일색이다. 그러면 국내 명상음반은 어디에 있을까. 불교 전문 책방인 여시아문의 명상음반 코너에 가 보면 국악명상음악 '향' (한소리리코드), 명상레코드에서 기획한 '산사의 명상음악시리즈 5권', 명상 기획의 '천년의 선', '국악명상음악' 유니레코드의 '선의 세계' 등 20여종도 채 안된다. 그나마 국내 명상음악의 선구자로 알려진 작곡가 김영동씨의 '선 I, II' 바람의 소리' 등이 눈에 띈다. 외국 음반에 비하면 턱없이 왜소한 수치다. '교보문고'의 전문 음반 매장에서도

수입품 1500종...장르도 뉴에이지등 다양 국산 20여종 불과, 소재 빈곤도 극복돼야

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 명상음반은 '명상의 말씀'과 김영동, 김도향, 김수철씨의 명상음악 정도가 고작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명상음반을 주로 취급하는 음반 사이트 명상나라 손민규 대표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입 명상음반은 1천5백종이상이 될 정도로 뉴에이지를 비롯해 연주악기나 장르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세분화 돼 있다"며 "이외에 국내 음반들은 주로 국악기에 한정돼 있고 소재도 산사나 불교만을 주제로 하는 등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에 따르면 현재 수입되고 있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대다수 음반들이 명상음악의 본거지인 티베

트와 인도의 전통악기에 현대적인 신디사이저 악기를 접목시켜 연병에 관계없이 편안히 들을 수 있도록 각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도 98년 인도음악에 심취한 김창수씨(서울대 작곡가 강사)가 '티벳 불교 예불' 음반에 이어, 4년간 현지 녹음한 '인도 명상음악' CD 8장을 펴낸바 있다. 아침을 맞는 인도인들의 경건함과 기쁨, 슬픔의 감정을 연주해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후속 음반을 내놓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경전 내용이나 염불을 모두 현대적인 장르와 악기로 음반 작업을 해 놓아 명상음악과 불교음악이 이미 대중화 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상음악의 장르를 단순히 국악이나 종교에만 국한시키지



음반매장을 찾은 한 여성이 수입명상음반을 고르고 있다.

말고 월드뮤직의 흐름과 연계한 다양한 장르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동양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명상음악이 이제 서구의 영업 전략에 밀려 판을

치는 작곡의 현실을 음반 기획자와 음악가, 수요자 등 관련자들이 냉철히 인식해야 할 때다. 김주일 기자 j@buddhapia.com

“현대불교미술 창조정신 필요”

윤범모교수, 월간지 '문화예술'에 기고

‘현대의 불교미술은 신라미술의 단순 복제보다 석굴암의 창조정신을 요구한다’ 윤범모교수(경원대 미술평론가)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예술' 11월에서 고연한 내용이다. 윤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미술전시회로 각인된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은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향방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성이 풍부한 작품이 많



불교사상을 선보인 의미있는 전시였다"며 "중요한 것은 신라미술의 단순한 복제 아닌 석굴암의 창조

‘아름다움과 깨달음’ 의미 큰 전시회

이 출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교미술대전이 일반 미술계의 역할있는 작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교수는 "장인들에 의한 과거 미술의 단순 복제 작품이 범람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시대의 역할있는 미술가들은 당연히 불교미술의 현장과 밀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윤 교수는 "다수의 연역작가들이

정신을 증진하는 불교미술계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종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큰소리를 서슴치 않았다. 윤 교수는 "불교미술의 천안함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 교육, 전시할 불교전문미술관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며 "종단에서 불교미술관의 건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김주일 기자



도올 김용옥씨가 EBS-TV 불교특강 마지막 강의에서 보컬그룹과 함께 '금강경'을 제창한 '번개여 처라'를 노래하고 있다.

‘예스, 잇 위즈 마이웨이(Yes, it was my way)’,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아리랑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EBS-TV 특강 '도올, 인도 불 만나다'의 마지막 강의에서 도올은 내 식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프랑크시나트라와 '마이웨이'를 자기 방식대로 불교를 강의했다는 내용으로 개사한 '마이웨이'를 부르면서 팔뚝을 열었다. '불교의 초기경전과 계승은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순간을 감정으로 표현한 일종의 노

“평기자로 새로운 인생 시작 하고파”

래"라며 "혹인 영가나 재즈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아 <숫타니파타>와 <금강경>을 선율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담은 완성도 높은 강의였으며 무엇보다 팔리어 경전과 초기불교의 세계는 지적 즐거움 그 자체였다"고 감회를 덧붙였다.

도올, 불교재즈공연으로 종강

숫타니파타·금강경 등 경전내용 선율에

그의 설명이 끝나자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코랄송의 외경경전>의 내용을 가사로 만든 재즈곡이 서울 재즈아카데미에서 연주됐다. 또 '번개여 처라, 나를 알아라' <금강경>와 '나도 없다, 너도 없다' <반야심경>의 내용을 4명의 보컬 그룹이 연주할 때는 도올도 어깨동무하고 춤을 추며 흥겹게 따라부르기도 했다. 특별출연한 김성녀 씨

미있었다"며 "하지만 주제의 내용보다 흥미위주 이야기가 많을 때도 있어 같이 있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토로한다. 한편 이날 공연 도중 도올은 "기자의 눈으로 세상에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든 문화일보 김장국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기로 했다"며 "소외받고 학대당하는 계층으로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진실과 본질에 접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

이번 기자직 수락 배경에 대해 도올은 "8월 중순 동국대 강연에서 농담삼아 가볍게 기사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시사저널 기자가 한줄 기사화 한 것을 문화일보 김 사장이 보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주일기자

국악인 안비취씨 삶다룬 '한오백년' 국립극장 공연

작고한 유명 국악인의 인생을 다룬 소리극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 98년부터 소리극을 공연해온 (사)경기민요보존회는 국악인 안비취(1926~1997)씨의 5주기를 맞아 안씨의 삶을 소리극 '한오백년'으로 기획, 14일 오후 3시와 15일 오후 3, 7시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총제작지휘는 선생의 수제자인 이춘희씨가 맡는다. 또 해제자인 김해



‘한오백년’의 리허설 장면. 안씨의 한 맺힌 소리를 통해 송화시켜 보았다"고 밝힌다. #02581-5811



명창가요 1.2집 출시 차상우씨 불음포교나서 전국 유명사찰의 전설이나 역사, 비경을 책이 아닌 노래로 듣는다면 그 사찰에 대한 이해가 더 깊고 빠를 수 있다. 최근 명창가요 음반 1.2집을 출시하며 음반포교에 나선 차상우 회장(한국명창가요협회)의 생각이다. 차씨는 "현재 정부가 지정한 국보와 문화재 1,466점중 불교문화재는 9백여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사찰만큼 훌륭한 박물관은 없을 것"이란 생각에 노래로 사찰을 알리는 작업을 해왔다"고 음반 발매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음반에는 '직지사' '황인암', '아래아제바라야제' '용주사' 등 총 26곡이 수록돼 있다. 작사도 차 회장이 직접 전국 사찰을 기도 순례하며 지었으며, 노래는 최영주, 김경아 등 한국명창가요협회 회원들이 불렀다. 내년 초에는 '오대산 월정사', '설악산 신봉사' 등을 소재로 한 음반을 발매할 계획이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팔모주름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중 등

팔모조립등

보관상태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만월등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준공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21@hanmail.net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